Ⅰ. 한국개발연구원 2000년 경제전망 (99년12월)

□ 성장

● 최근의 빠른 경기회복세와 안정적인 대외여건에 비추어 볼 때 2000년 GDP 성장률은 약 7.8%에 달할 전망.

- 이러한 성장률은 향후 GDP의 추세가 전분기대비 (계절조정 이후) 약 1.5%의 속도로 성장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최근의 급속한 성장세가 다소 완화되는 경우를 상정한 것임.

□ 소비 및 투자

● 민간소비는 실질소득 증가 및 실업률 하락 등으로 2000년에도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이나, 설비투자의 경우에는 최근의 급속한 확대의 결과 GDP 대비 비율이 이미 예년수준으로 근접함에 따라 99년에 비하여 크게 둔화될 전망.

- 한편 건설투자는 아직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하고 있으나 99년 중의 급속한 건설수주 확대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2000년 이후에는 증가세로 반전될 가능성.
- 그 동안 급격히 진행되어 온 재고조정 또한 99년 4/4분기를 전후로 완료되어, 2000년에는 재고투자가 다시 증가세를 회복할 전망.

□ 수출입 및 경상수지

● 2000년에는 거시정책의 안정적 운영과 더불어 경기상승 속도가 둔화되면서 수출과 수입증가율 모두 99년보다 다소 하락할 전망.

- 원화절상, 경기회복에 따른 수입확대 등의 결과 경상수지흑자는 120억 달러 내외로

- 축소될 전망.

□ 소비자물가

● 99년 중 1% 미만에 그쳤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0년에는 연평균 3%대로 상승할 전망
- 특히 2000년 중 물가상승률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므로 말대말(99년말 대비 2000년말) 물가상승률은 4%를 초과할 가능성

□ 구조조정과 경제전망

● 이상의 전망에서 보듯이 거시경제 기초여건으로 판단할 경우 내년에도 경기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나 구조조정의 진전여부 역시 경제전망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
- 민간부문에서 구조조정에 계속 주력하면서 신규투자를 자제하고 정부는 안정정책을 강화하며, 대외여건이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 내년 성장은 잠재성장률에 근접한 6.4% 수준으로 둔화되는 반면 물가는 3% 미만으로 안정되고 경상수지 흑자는 140억 달러 내외로 다소 확대될 전망.

〔표 1〕 1999~2000년 경제전망

(전년동기대비, %)

	1999					2000		
	1/4 P	2/4 P	3/4 P	4/4	연간	상반	하반	연간
국내총생산	4.5	9.9	12.3	13.0	10.1	9.3	6.5	7.8 (6.4)1)
총소비	5.0	7.3	8.4	8.8	7.4	6.6	5.5	6.0
총고정투자	-4.3	4.9	6.9	6.9	3.9	6.7	11.9	9.5
(설비)	12.9	37.2	48.0	44.0	35.2	16.9	14.8 2	15.7
(건설)	-13.7	-8.5	-10.0	-7.1	-9.5	0.0	10.2	5.5
총수출	10.3	15.1	22.2	23.5	18.0	16.2	7.6	11.7
총수입	27.0	26.9	32.0	34.9	30.4	22.9	13.8	18.1
경상수지(억달러)	62	64	66	60	252	71	55	126 (140)1)
상품수지	68	80	72	69	289	94	76	170
소비자물가	0.7	0.6	0.7	1.4	0.8	2.7	3.8	3.2 (2.7)1)

주: 1)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는 경우의 전망수치임.
2) P는 잠정치(preliminary)임.

2. 한국노동연구원, 2000년 고용전망과 정책과제 (99년 12월)

가. 최근 노동시장 평가

□ 최근 고용동향 평가

● 1999년 하반기 이후 취업자 증가, 실업감소 등 노동시장 사정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으며, 이는 급격한 경기회복에 따른 노동수요 증가와 공공근로 등 실업대책의 부분적인 효과에 기인함.
- 하지만 실업의 양적 규모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며, 고용구조의 취약성이나 장기실업 및 청소년 실업의 문제 등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현안으로 남아있음.

□ 고용안정성의 문제

● 산업구조의 소프트화, 직업의 다양화에 따라 파트타임근로, 계약직 등 자발적인 비정규고용이 증대하는 것은 선진국의 추세임.
- 하지만 우리 나라의 최근 비정규고용의 증대는 기업의 정규직 고용기피와 아울러 공공근로, 인턴제 등 실업대책에 따른 임시고용의 확산에 따른 것으로 보임.

● 1999년 11월중 취업자(5.9%)와 임금근로자가 크게 증가(7.6%)함에도 불구하고 상용직은 오히려 0.6% 감소하고 일용직(29.3%)과 임시직(9.5%)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임금근로자 중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비중은 53%를 기록하여 지난 3월에 50%를 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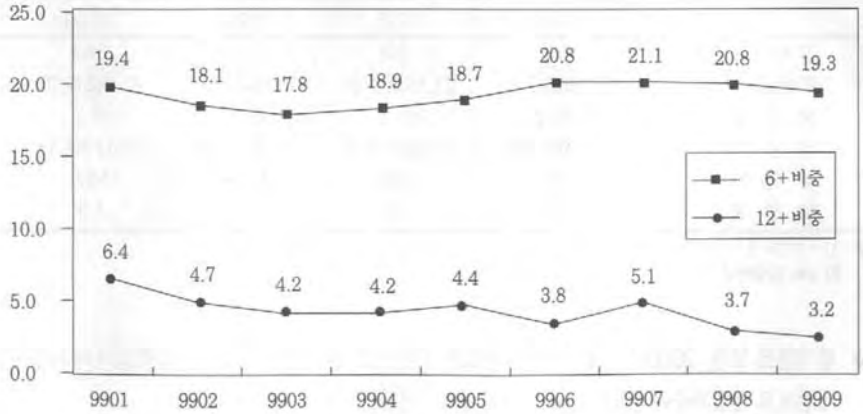
은 이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장기실업의 문제

● 우리 나라의 경우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아직은 취약하기 때문에 유럽 등 선진국 수준으로 장기실업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장기실업자의 비중(장기실업률)은 1999년 초의 최고의 실업률을 기록하였을 당시에 비하여 6개월 이상은 비슷한 수준, 12개월 이상은 약간 낮아지고 있음.

● 그러나 장기실업자의 다수가 사회적 부담이 큰 계층에 집중되어 있어 이에 대한 예방 및 관리대책이 필요함.
- 9월의 경우, 12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는 남성(90.3%)과 가구주(62.0%)가 많으며, 남성의 경우 35~54세(57.1%), 여성은 20~29세(54.0%)에 집중
- 학력별로는 고졸자가 53.3%, 대졸자가 19.1%임.

〔그림 1〕 구직기간 6개월 및 12개월 이상인 실업자의 비중



나. 2000년 노동시장 전망

□ 실업률 및 실업자수 전망

● 2000년의 성장률을 7%대로 가정할 때, 연평균 실업률은 4.3%, 실업자 규모는 957천명으로 전망

- 금년의 높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회복에는 시차가 있어 금년의 연간 취업자 증가율은 1%대에 머물고, 경기회복에 따른 취업증가가 2000년에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2000년의 고용증가율은 4.1%로 올해보다 823천명이 증가할 것이며, 노동공급도 전년대비 2.0% 증가하여 경제활동참가율은 61.2%를 기록

● 그러나 노동시장 사정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2000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아직도 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의 수준에는 못 미치며, 실업자수는 1.7배에 이르는 것임.

- 취업자수는 1997년의 100.1%이나 경제활동참가율은 아직 1.0%P 낮음.

〔표 2〕 고용전망

(단위 :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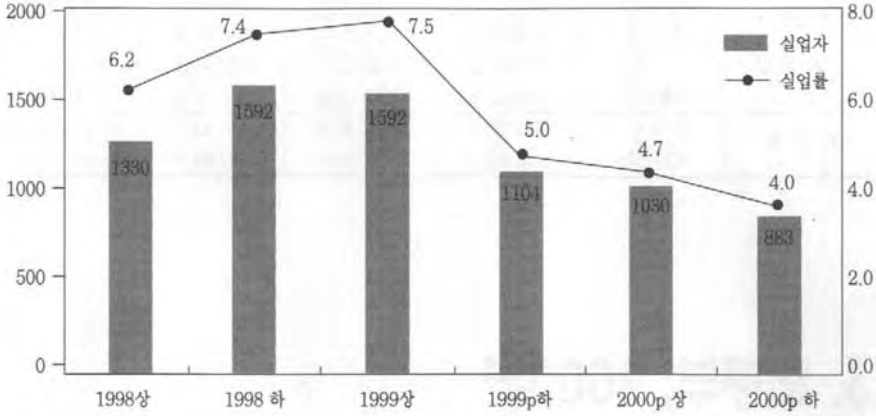
	1997	1998	1999p	2000p
경제성장률	5.5	-5.8	9.5	7%대
경제활동인구	21,662(2.0)	21,455(-1.0)	21,654(0.9)	22,085(2.0)
참 가 율	62.2	60.7	60.5	61.2
취 업 자	21,106(1.4)	19,994(-5.3)	20,306(1.6)	21,129(4.1)
실 업 자	556	1,461	1,348	957
실 업 률	2.6	6.8	6.2	4.3

주: 1) (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감율임.
2) p는 전망치임.

● 분기별로 보면, 2000년 1/4분기에는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고용감소와 신규학졸자의 노동시장 진입으로 실업자수가 금년 4/4분기에 비하여 101천명 증가

- 이에 따라 2000년 상반기에는 4.7%, 하반기에는 4.0%의 실업률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

〔그림 2〕 반기별 실업자 추이 및 전망 (단위 : 천명, %)



주 : p는 전망치임.

□ 실업구조 전망

● 2000년에 들어서는 노동시장 사정이 급속히 회복되면서 15~29세 청년층의 노동시장 재진입이 예상되어 실업자중 청년층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1999년에는 신규취업의 어려움 때문에 상급학교 진학, 고시준비 등의 이유로 노동시장으로부터 퇴출하는 자가 많아져, 전체 실업자중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보다 다소 줄어들었음.

● 학력별로는 대졸이상의 고학력 실업자의 비중이 다시 증가할 전망임.

- 성별로는 남성 실업자가 2/3를 차지하며, 가구주 실업자는 전체 실업자의 45% 전후에 달할 것임.

〔표 3〕 특성별 실업구조 전망 (단위: 천명, %)

		1997	1998	1999p	2000p
전 체		556(100.0)	1,461(100.0)	1,348(100.0)	957(100.0)
성 별	남 자	352(63.2)	983(67.3)	910(67.5)	647(67.6)
	여 자	205(36.8)	478(32.7)	438(32.5)	310(32.4)
연령계층별	15~29세	314(56.4)	612(41.9)	555(41.2)	397(41.5)

	30~39세	115(20.6)	359(24.6)	349(25.9)	239(25.0)
	40~54세	96(17.2)	377(25.8)	336(24.9)	240(25.1)
	55세 이상	32(5.8)	113(7.7)	108(8.0)	81(8.4)
학 력 별	중졸이하	118(21.3)	410(28.1)	388(28.8)	275(28.8)
	고 졸	307(55.2)	766(52.4)	715(53.0)	503(52.6)
	대졸이상	130(23.5)	285(19.5)	245(18.2)	179(18.7)
가 구 주	가구주	192(34.5)	666(45.6)	611(45.3)	432(45.1)
	비가구주	365(65.5)	795(54.4)	737(54.7)	525(54.9)

3. 노동부, 2000년 고용전망 (2000년 1월)

1. 고용전망 BSI

- 2000년 5인 이상 전산업(표본 4,425개)의 고용전망 BSI는 113.7로 1999년에 비해 고용이 크게 늘어날 전망.
  - 전년에 비해 근로자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업체수는 915개소(20.7%)로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310개소(7.0%)보다 605개소(13.7%P) 상회

- 2000년 1/4분기 고용전망 BSI는 111.7로 '99. 4/4분기에 비해 고용이 증가할 전망.
  - 99. 2/4분기이후 분기별 고용전망 BSI는 지속적으로 증가폭이 커지고 있어 기업의 고용마인드가 확대되고 있음

- 특히, 과거추세와 비교가 가능한 상용근로자 30인 이상 제조업체의 BSI추이를 보면, 98. 1/4분기의 49.7을 저점으로 서서히 회복되어
  - '99. 3/4분기에 2년 6개월만에 100이상을 회복하여 고용증가세로 반전된 후 4/4분기에 111.5로 증가하였다가,
  - 2000년 1/4분기에는 120.9로 '94. 8월 상용근로자 30인이상 제조업체 대상으로 처음 조사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

- 사업체규모별로는 사업체규모 전반에 걸쳐 고용증가가 전망되었으며, 300인 이상 대기업의 BSI(115.7)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BSI(111.4)보다 높게 나타났음

- 산업별로는 제조업(121.0)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산업에서 고용증가 전망

- 고용형태별로는 전일제근로자의 고용전망 BSI는 111.1로써 시간제근로자의 101.6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 지난 2/4분기이후 고용증가 패턴이 시간제 중심에서 전일제 중심으로 점차 개선될 전망

2. 12월 현재 인력과부족 상황

- '99. 12월 현재 모든 직종에서 '인력부족'으로 응답한 사업체 비율이 '인력과잉'으로 응답한 사업체의 비율을 상회하여 전반적인 인력부족 현상을 보임.
  - 직종별 인력부족 초과비율을 보면, 특히 기능원 및 관련기능직(12.5%P), 서비스·시장판매직(11.3%P), 전문가(10.9%P), 기술공 및 준전문가(10.4%P)가 높고,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0.4%P)는 소폭에 그침

- 사업체규모별로 보면 300~499인 중기업의 인력부족비율은 26.6%로 가장 높으며, 부족초과비율도 21.0%P로 가장 높게 나타나 신규채용 여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
  - 500인 이상 대기업은 인력부족기업 비율이 16.4%로 평균 수준(15.1%)보다는 높은 수준이나, 인력과잉비율도 13.6%로 높아 2.8%P의 부족초과비율을 보여 큰 폭의 고용증가를 기대하기는

곤란

-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의 인력부족 초과비율이 지난 10월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력부족 현상이 심화
- 10월에 최고치를 보인 제조업은 2.2%P 상승한 19.9%P로 가장 높은 수준 유지

3. 고용조정 전망

- 2000년 1/4분기중 고용조정 예정업체수는 전체 4,425개소중 376개소(8.5%)로 '99. 4/4분기의 10.1%와 비교시 1.6%p 낮은 수준으로 기업의 고용조정 정도가 다소 둔화될 전망

- 사업체규모별로는 5~9인 5.7%, 10~29인 8.0%, 30~99인 11.5%, 100~299인 11.1%, 300~499인 13.9%, 500인 이상 15.9%로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고용조정 강도도 높을 전망

- 산업별로는 '99. 4/4분기와 동일수준을 보인 음식 및 숙박업과 교육서비스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고용조정 BSI가 낮아졌음

4. 근로자 채용계획

- 2000년 1/4분기중 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이 있는 업체수는 전체 4,425개소중 1,029개소(23.3%), 없는 업체는 2,290개소(60.6%), 미정인 업체는 714개소(16.1%)로 나타남

- 사업체규모별로는 상용근로자 500인이상 대기업이 44.1%로 가장 높으며, 300~499인 43.4%, 100~299인 35.5%, 30~99인 28.4%, 10~29인 22.3%, 5~9인 15.2% 등의 순

-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35.0%로 가장 높으며, 5~9인 사업체(23.0%)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30~40%대의 높은 비율을 보여 고용증가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300~499인 제조업은 44.4%로 가장 높은 수준

4. KDI, 한국경제의 중장기 전망에 대한 여론조사(99년 12월)

조사내용	설문요지	조사 결과(%) 일반 국민	조사 결과(%) 경제 전문가
○ **경기과열논쟁에 대한 의견에 대한 의견**			
1. 현 경기상황을 두고 '과열을 우려해야 한다, 아니다' 라는 논쟁	과열을 우려해야 한다	32.2	
	과열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63.9	
	모르겠다	3.9	
○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논란 의견**			
2. 현행법으로는 2002년부터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지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논란에 대한 의견	현행법에서 정한 일정대로 임금지급은 금지해야	28.2	77.0
	지급금지 규정을 없애 임금지급 가능토록 해야	51.6	19.0
	모르겠다	20.2	3.9
○ **내년도 경제전망**			
3. 내년도 우리 경제 전망	매우 좋아질 것이다	3.8	8.4
	약간 좋아질 것이다	45.2	51.8
	올해와 비슷할 것이다	39.5	24.1
	약간 나빠질 것이다	9.4	14.6
	매우 나빠질 것이다	2.1	0.8
	무응답		0.3
4. 내년도 가정 경제 전망	매우 좋아질 것이다	2.7	
	약간 좋아질 것이다	29.1	
	올해와 비슷할 것이다	53.1	
	약간 나빠질 것이다	11.9	
	매우 나빠질 것이다	3.1	
5. 내년도 물가가 2~3% 오를 것이라는 전망에 대한 견해	2~3%보다는 더 오를 것이다	61.9	75.6
	2~3%정도 될 것다	27.9	23.5
	2~3%까지는 안 오를 것이다	9.8	0.6
	무응답	0.4	0.3
6. 올해에 비해 내년도	매우 좋아질 것이다	3.1	4.2

고용상황 전망	약간 좋아질 것이다	45.1	68.3
	올해와 비슷할 것이다	36.7	21.3
	약간 나빠질 것이다	12.0	5.9
	매우 나빠질 것이다	2.5	0.3
	무응답	0.6	-
7. 만약 내년에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그 요인	금리상승	6.7	10.1
	물가상승	21.7	24.1
	환율 불안정	19.2	20.2
	실업문제	27.8	8.1
	노사관계불안	21.3	32.5
	기타	1.8	5.0
	무응답	1.5	-
○ 체질개선을 위한 구조조정의견			
8.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상당기간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전적으로 동의한다	31.0	59.4
	동의하는 편이다	42.8	34.2
	동의하는 않는 편이다	18.5	5.3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6.3	0.8
	무응답	1.3	0.3
○10년내 선진국 진입 여부			
9. 우리나라가 10년내에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전적으로 동의한다	10.9	7.8
	동의하는 편이다	43.8	44.0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33.0	42.6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1.3	5.0
	무응답	1.0	0.6
○ 2010년 2만불 전망			
10. '1인당 국민소득이 2010년에 2만불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에 대한 실현가능성 여부	매우 가능성이 높다	6.7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49.9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39.5	
	매우 가능성이 낮다	3.6	
	무응답	0.3	
○선진국 진입 걸림돌			
11.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	노사관계 불안정	11.0	4.5
	기술개발 낙후	16.5	38.7
	계층간 소득격차 심화	36.0	12.0
	기업경영의 후진성	17.1	10.1
	금융시스템 낙후	4.3	8.1
	교육제도의 후진성	8.1	16.2
	기타	3.2	10.4
	무응답	3.9	-